

생태미술의 순환성과 정원예술의 상호연계적 표현특성에 관한 분석

- 정원으로 구현된 야외 전시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이경*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I. 서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불러온 생태계의 불균형과 기후변화의 위기로 인해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대하여 전면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정원, 넓게는 대지와 자연을 매개로 기획된 전시가 국내 미술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정원이 예측 불허의 시대에 인류가 처한 생태 위기에 대한 근원적 해답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Harrison(2008)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는 사회적, 생태적, 예술적 형태로 정원을 통해 구현된다고 말한다. 정원은 이상적인 형태의 '자연'이 아닌 물질, 사상, 인간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생태적 환경인 구체적 물질문화의 산물이자 자연을 모태로 시대의 이상향을 상상하고,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회적 실험실이다(조주영, 2020).

특히, 팬데믹 이후에 기획된 현대미술 전시는 미술관의 내부 공간에서 벗어나 외부공간을 전면적인 전시공간인 '정원'으로 구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생태미술의 전일적 관점(wholistic world view)을 보여주며 정원은 전시공간인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반성의 장이 된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소다미술관의 전시를 사례로 하여 생태미술의 순환성 요소가 정원예술의 표현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시공간에 나타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체계를 정립하였고 사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례를 위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으로 한정했으며, 연구의 대상은 미술관 외부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기획한 전시와 작품을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생태미술의 유기적 순환성

자연의 원리를 수용하는 '순환성(circularity)'은 생태미술의

여러 해석과 실천 사이에서 구분되는 특성(강술생, 2012)으로, 생태계(ecosystem)의 사이클과 리듬에 반응하고 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의 주재료가 작품의 형식과 내용 전체를 결정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자연적 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의 작품은 자연 물질로서 자연의 장소에서 만들어지며 자연 안에서 존재하다 자연의 현상으로 소멸한다(미순자, 2000). 해결에 기반을 둔(Solution-based) 접근방식으로 생태미술은 사회와 문화의 큰 맥락 안에서 구현된다.

2. 정원예술의 표현요소

정원은 철학의 기본적인 두 요소인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진 예술적 장소이다. 정원예술은 자연을 모태로 하지만 야생적 자연이 아닌, 자연을 문화화한 예술이다. 문화적 자연으로 정원에 서는 오브제, 인위적인 요소들로 인한 개입이 일어난다(조경진, 2014). 크리스티안 케이 로렌츠 히르시펠트(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는 그의 저서 『정원예술론(Theorie der Gartenkunst)』에서 정원의 조형화된 질서 속에서도 자연이 우위를 차지하며 자연으로의 회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Hirschfeld, 2001). 정원예술은 형이상학적인 감정의 개입으로 자연적 물질 재료와 비물질적인 인간성, 감각감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일어나는 상상력과 관념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Harrison(2008)은 미학의 대상인 정원에서 인간의 삶을 중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며, 이는 몸감각과 시간감각을 발현시키는 예술 작업으로 정원예술에서 구현된다.

III. 사례분석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예술가의 발-산고랑길》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야외조각공원 부지에 조성된 작가 김도희와 조경가 최재혁이 공동으로 참여한 작품 〈예술가의 발-산고랑길〉은 자연성의 회복을 주제로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을 흙

이라는 원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농사와 경작의 특징을 재해석한 생태적 공간으로 표현된다. 김도희 작가는 하동 적황토, 충청남도 보령 황토, 과천 야외 흙 등을 재료로 밭고랑과 이랑의 구조를 구현하였다. 조경가 최재혁은 김도희 작가의 작업을 배경으로 원생 자연-경작을 통한 자연-감상하는 자연의 순서로 정원에 배열하였다. 자연재료인 흙을 통해 밭을 경작하는 생산적 행위를 이끌어내고 날씨, 습기, 계절, 바람에 따른 풍화(aging)의 과정을 거치며 이랑과 고랑은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구현된다. 이와 동시에 작가가 직접 흙을 고르고 퍼는 주체적인 행위는 재료 이면의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사유의 시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확대된다. 예술가의 밭을 따라 관람객은 관조가 아닌 참여와 행동을 통해 거닐고 자연과 인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2. 소다미술관 《Open Museum Garden: 우리들의 정원》 전

소다미술관은 경기도 화성시 우이동에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형 미술관으로 <일본일초一分一秒>는 조경가 안마당 더 랩(오현주, 이범수, 이상아, 김명천, 이주현, 백찬민)의 작품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재생된 건물의 일부 천장이 뚫린 지붕 없는 전시장에 조성되었다. 폐허와 같은 전시장의 콘크리트 구조 공간에 식물의 물성이 더해지면서 미완으로부터 정원 생태체계를 구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소멸의 과정이 아닌 생명과 소멸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자연재생의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은 숲을 주제로 하여 천장이 열린 장소가 가지고 있는 현장의 특성과 생태 조건을 반영하여 그림자가 드리우는 숲 같은 공간을 나무, 해가 따스하게 스미는 공간은 돌, 바람이 부는 공간은 풀이라는 각각의 재료를 선택했다. 작품 제목은 짧은 시간이라는 뜻에 동이(분)과 풀(초)라는 식물을 더한 개념으로 시간의 순환성을 통한 감정의 현상화가 정원에 나타난다. 관람객은 정원에 던져진 몸과 지각에 반응하며 자연세계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온화하고 따스한 공간, 친밀한 공간 등의 감각적 경험을 느낀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정원에서 자연의 본질에 대한 실천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Figure 1. 김도희, 최재혁, <예술가의 밭-산고랑길>, 2021. 안마당 더 랩, <일본일초一分一秒>, 2021. (출처: 라펜트, 2021)

IV. 결과 및 맺음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야외조각공원과 재생된 유휴공간인 소다미술관의 외부 전시장은 기존 화이트큐브의 한정적인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정원'으로 구현된 외부공간을 통해 관람자, 작품, 그리고 전시를 포괄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둘째, 자연적 소재를 통해 생성과 소멸의 유기적인 과정을 구현하며 더 나아가 비물성의 공간 각성과 감각성을 견인하는 미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이끌어낸다. 위의 두 결론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원을 매개로 전시공간을 구현한 양상은 정원의 미학적 요소를 추구하는 전시 내용과 방식에서 나아가 외부의 경계가 열린 정원 생태계를 구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낸다. 정원예술은 문명의 변화 속에서 인간-자연-문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정의한다. 인류세의 시대라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신호를 넘어서 정원예술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강술생(2011) 생태미술에 나타난 '순환성' 표현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 마순자(2000) 미술과 자연: 생태미술. 서양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4: 161-171.
3. 조주영(2020) [T]he garden says it all: 『아카디아』 속 정원에 투영된 스토파드의 유포티아니즘" 이화여자대학교.
4. 조경진(2014) 히르시펠트(C.C.L.Hirschfeld) 정원예술론의 의미와 가치의 현대적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
5. C. C. L. Hirschfeld(2001) "Theory of Garden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6. Harrison, Robert Pogue. (2008).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http://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129531
8. 국립현대미술관 사이트 <http://www.mmca.go.kr/exhibitions>